

조사보고서

벤처기업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

2014. 12



목 차

I. 조사 개요	1
II. 조사 결과	2
1.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상장과 M&A에 대한 시각	2
2. 벤처기업의 경영 행태 및 애로사항	4
3. 벤처캐피탈의 투자 행태	6
4. 향후 정부 정책방향	7
III. 시사점	8

I. 조사 개요

- 조사대상 : 벤처기업 302개, 벤처캐피탈 50개
- 조사시기 : 2014년 10월 20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조사방법 :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및 팩스 조사
- 조사대상 특성(응답기업 기준)

기업구분	빈도수	백분비
전체	352	100.0%
벤처기업	302	85.8%
벤처캐피탈	50	14.2%

- 표본오차 : $\pm 4.05\%$ (95% 신뢰수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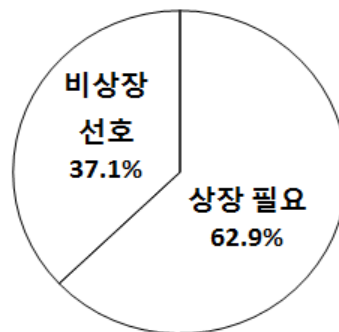
II. 조사 결과

1. 벤처기업과 투자자의 상장과 M&A에 대한 시각

○ 벤처기업은 상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면, M&A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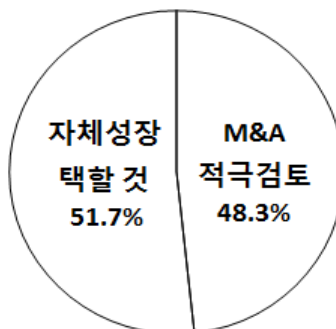
- 기업상장의 필요성에 대해 '기업 규모확대, 투자금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'라는 응답이 62.9%로 '비상장이 낫다'(37.1%)는 응답보다 많았음

<그림1> 벤처기업의 기업상장에 대한 시각



- 대기업이나 타기업이 M&A를 제의하면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'M&A보다 자체성장을 택할 것'(51.7%)이라는 응답이 'M&A를 검토해 볼 것'(48.3%)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음

<그림2> 벤처기업의 M&A에 대한 시각



○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방법으로 상장을 M&A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벤처캐피탈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금 회수방법은 '상장'(66.0%), 'M&A'(20.0%), '회사채·주식 매각'(10.0%) 순으로 집계 <'기타' 4.0%>

○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언스트앤영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장보다 M&A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중이 훨씬 높았음

- 벤처캐피탈이 M&A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중이 유럽은 91.3%(상장 8.7%), 미국이 85.5%(상장 14.5%), 이스라엘이 83.3%(상장 16.7%), 중국은 57.1%(상장 42.9%)였음

<표1>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금 회수방법 비중 (기준 : 회수건수)

	유럽	미국	이스라엘	중국
M&A	91.3%	85.5%	83.3%	57.1%
상장	8.7%	14.5%	16.7%	42.9%
계	100.0%	100.0%	100.0%	100.0%

*출처 : Global venture capital insights and trends 2014 ('14, EY)

○ 국내에서 M&A가 어려운 이유는 투자자와 경영자간 의견상충이라는 의견이 다수

- M&A의 가장 큰 걸림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.7%가 '투자자와 경영자간의 의견상충'이라고 응답했고, 이어서 'M&A 가격차이'(30.7%), 'M&A 정보부족'(13.6%) 순으로 집계

<표2> M&A가 어려운 이유

	M&A 가격차이	M&A 정보부족	투자자-경영자 의견상충	계
전 체	30.7%	13.6%	55.7%	100.0%
벤처기업	29.8%	11.9%	58.3%	100.0%
벤처캐피탈	36.0%	24.0%	40.0%	100.0%

○ 세계 주요국과 달리 국내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은 모두 M&A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벤처생태계의 자금순환 통로가 협소

- 글로벌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신생 벤처기업 등에 대한 M&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, 국내는 신성장동력사업과 연관된 벤처기업을 M&A하기 보다는 대기업 등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하려는

계열사 구조조정 관련 매물이 주요 M&A 대상(14. 11, 금감원 보도자료)

- 기술·인력 탈취의 우려나 최후의 구조조정 수단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고 전문 컨설팅·거래소 조성 등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, 세제지원 등을 통해 M&A를 투자금 회수와 기업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함

2. 벤처기업의 경영 행태 및 애로사항

- 벤처기업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‘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 사업화’(87.7%)이었고, 이어서 ‘과거 직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업화’(7.3%), ‘재창업 또는 사업전환’(4.3%) 순으로 집계 <‘기타’ 0.7%>
-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는 창업기보다 성장기 또는 성숙기가 높았음
 - 현재 성장단계 중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해 ‘성장기(5~10년 이하)’(42.4%)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이어서 ‘성숙기(10년 초과)’(33.3%), ‘창업기(5년 이하)’(24.3%) 순으로 집계
- 벤처기업의 89.1%가 창업 후 5년 내 영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조사됨
 - 벤처기업 창업 후 영업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되었거나 예상하는 기간에 대해 ‘1~3년 미만’(45.7%)이 가장 많았고, 이어서 ‘3~5년 미만’(27.2%), ‘1년 미만’(16.2%), ‘5~7년 미만’(5.6%), ‘7~10년 미만’(5.3%) 순으로 집계

<표3> 벤처기업 창업후 영업이익 도달 기간

	1년 미만	1~3년 미만	3~5년 미만	5~7년 미만	7~10년 미만	계
비 중	16.2%	45.7%	27.2%	5.6%	5.3%	100.0%

- 벤처기업의 대부분은 미래 성장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
 -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91.1%가 ‘성장가능성이 높다’고 응답했고, ‘성장가능성이 불투명하다’는 응답은 8.9%로 집계
- 벤처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내수시장으로 조사됨
 - 현재 주력하고 있거나 앞으로 주력할 예정인 시장에 대해 응답기업의 67.2%가 ‘내수시장’이라고 응답 <‘수출시장’ 32.8%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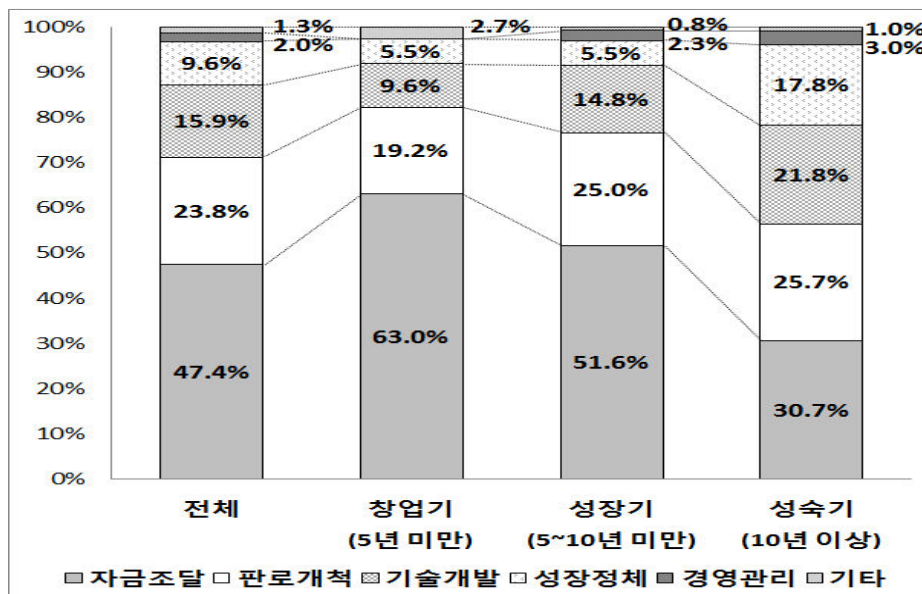
○ 벤처기업은 자금조달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-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'자금조달'(47.4%), '판로개척'(23.8%), '기술개발 및 기술의 사업화'(15.9%), '주력업종 성장정체'(9.6%), '경영관리'(20%) 순으로 응답 <'기타' 1.3%>

○ 기업이 성장할수록 자금난은 줄어드는 반면 판로애로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
- 자금애로 응답비중 : 창업기(63.0%)→성장기(51.6%)→성숙기(30.7%)
- 판로애로 응답비중 : 창업기(19.2%)→성장기(25.0%)→성숙기(25.7%)

〈그림3〉 벤처기업 경영애로



*괄호는 벤처기업의 업력

○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로 일반은행과 정부지원금으로 나타남

-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'일반은행'(39.4%), '정부정책자금'(29.1%), '엔젤투자 벤처캐피탈'(28.5%), '회사채·주식매각'(2.0%) 순으로 집계 <'기타' 1.0%>

○ 벤처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법은 정부정책자금으로 조사됨

- 응답기업의 77.5%가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처로 '정부정책자금'이라고 응답했고, 이어서 '엔젤투자 벤처캐피탈'(11.9%), '일반은행'(10.3%), '회사채·주식매각'(0.3%) 순으로 응답

○ 지난해 정부의 벤처육성정책 이후 벤처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벤처창업이 활발해지는 등 선순환하는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

- 하지만 여전히 벤처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완화돼야 함

* 벤처기업 신규 투자유치금('14 중기청) : 11천억원('10)→12천억원('12)→15천억원('14 예상)

* 벤처기업수('14 벤처기업협회) : 24,645개('10)→28,193개('12)→29,196개('14.9)

* 신설법인수 추이(3/4분기, '14 중기청) : 18,650개('12)→18,423개('13)→21,080개('14)

3. 벤처캐피탈의 투자 행태

○ 벤처캐피탈 대부분이 투자처 선정시 기업가정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투자처를 결정할 때 기업가정신을 고려하는 정도에 대해 '매우 중요'(68.0%), '조금 중요'(30.0%), '별로 중요하지 않다(2.0%) 순으로 집계

○ 벤처캐피탈은 투자결정 요소로 '경영자의 자질(50.0%)과 함께 '해당기업의 실적·기술력 등 객관적 데이터'(44.0%)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<'해당기업에 대한 업계의 평판·의견 수렴' 4.0%, '기타' 2.0%>

○ 벤처캐피탈의 58.0%가 창업 후 5년 이상된 벤처기업에 투자를 선호함

- 벤처기업의 업력별 투자선호도에 대해 '5~10년 미만(52.0%)이 가장 많았고, 이어서 '5년 미만(42.0%), '10년 이상(6.0%) 순으로 집계

<표4>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선호도

	5년 미만	5~10년 미만	10년 이상	계
비 중	42.0%	52.0%	6.0%	100.0%

○ 벤처캐피탈의 투자기간은 대부분 5년 미만으로 조사됨

- 투자처별 평균 투자기간에 대해 '3년 미만(44.0%)과 '3~5년 미만(44.0%)이 가장 많았음 <'5~10년 미만' 12.0%, '10년 이상' 0.0%>

4. 향후 정부 정책방향

○ 향후 정부가 벤처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정책방향은 자금지원인 것으로 조사됨

- 전체 응답자의 60.2%가 '자금지원'이라고 응답했고, 이어 '규제완화 등 인프라 개선'(16.5%), '판로지원'(12.8%), '기술지원'(6.8%), '인력지원'(3.7%) 순으로 집계

<표5> 향후 정부가 중점을 뒀야 할 정책방향

	자금지원	인프라 개선	판로지원	기술지원	인력지원	계
비 중	60.2%	16.5%	12.8%	6.8%	3.7%	100.0%

○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는 상장요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응답자의 40.0%가 '상장요건 개선'이라고 답했고, 이어서 'M&A 활성화'(34.0%), '세컨더리펀드 활성화'(26.0%) 순으로 집계

<표6> 벤처생태계 자금 선순환 방안

	상장요건 개선	M&A 활성화	세컨더리펀드 활성화	계
비 중	40.0%	34.0%	26.0%	100.0%

III. 시사점

- 국내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양측인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상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M&A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- 세계 주요국은 M&A 활용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M&A를 활용한 자금순환이 경직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음
 - 이는 M&A에 대해 기술과 노하우 거래를 통한 성장수단이라기보다 경영악화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
 - 벤처기업이 창업 후 상장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여 다른 기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M&A와 같은 중간회수 수단이 활성화되어야 함
- 벤처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는 자금난이었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판로애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
 - 기업이 성장할수록 자금난 외에 여러 애로사항에 직면하므로 정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함
- 벤처캐피탈은 투자할 벤처기업을 결정할 때 기업가정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모험자본이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생태계에서 투자자가 벤처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
 -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를 보면 여전히 창업 후기 벤처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안정성 위주의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
- 국내 벤처생태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주도의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
 - 정부는 상장요건 개선, M&A환경 개선,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등 투자금 회수수단을 다양화시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